



한국IR협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5.10.02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자비스 (254120)

FSCAN은 캐시카우,
XSCAN 배터리/반도체는 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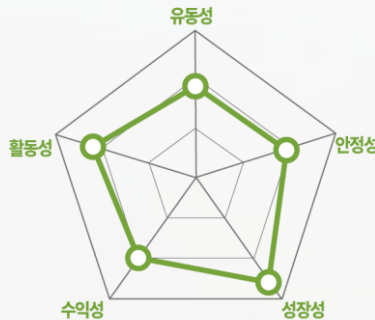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019년 기술특례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산업용 X-ray 검사장비업체로, 사업영역은 XSCAN(2차전지, 반도체)과 FSCAN(식품 이물검사)으로 구분. 2024년 매출비중은 XSCAN 2차전지 49.5%, XSCAN-PCB 14.6%, FSCAN 23.9%, 기타 12.0% 차지
- 투자포인트: 1)배터리 검사장비시장의 Game Changer, 초고속 3D CT 검사장비 판로 확대 기대, 2)반도체 TGV 시장 진출, 3)국내 M/S 1위 FSCAN 부문은 캐시카우로서 성장성까지 겸비
- 현주가는 PBR 1.4배로 코스닥평균 및 동종업종내 저평가 국면, 엑스레이 검사장비시장 All-round Player로서 식품, 2차전지, 반도체 등 전 사업부문에서 고성장 기대, 향후 주가는 2026~2027년 신성장동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주가재평가 기대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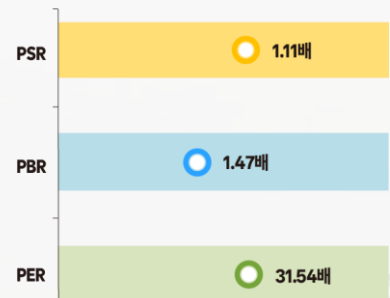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4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4년 기준, PBR은 4Q24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배터리 검사장비시장 Game Changer, 초고속 3D CT 장비로 판로 확대 기대

2차전지 3D CT 검사장비 부문에서 SK온 레퍼런스 확보, 업계 표준으로 판로 확대 기대

반도체 TGV 시장 진출 임박

삼성전기를 고객사로 반도체 TGV 검사장비 시장 진출 기대, 삼성전기의 TGV 양산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2026년부터 삼성전기에 TGV 검사장비 납품이 본격화될 전망

국내 M/S1위 FSCAN 부문은 캐시카우로서 성장성까지 겸비

FSCAN 부문은 안정적 캐시카우인 동시에 해외지역 수출 증가로 성장성에도 기여, 최근 5년간 FSCAN 부문 매출액 CAGR은 14.6%를 기록, 내수 부문 CAGR은 3.7%로 정체 국면인데 비해 수출 부문 CAGR은 42.1%로 고성장 국면.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생선뼈, 닭뼈 등 중저밀도 이물 검사장비 수요 증가세, 건강 기능식품 시장 확대도 수요증가 요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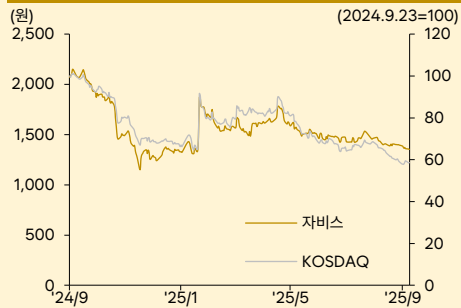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61	223	287	376	344
YoY(%)	30.9	38.9	28.6	31.0	-8.7
영업이익(억원)	-40	-0	8	12	9
OP 마진(%)	-24.8	-0.1	2.9	3.2	2.5
지배주주순이익(억원)	-50	4	-39	13	3
EPS(원)	-216	15	-140	43	8
YoY(%)	적지	흑전	적전	흑전	-80.8
PER(배)	N/A	98.5	N/A	29.5	164.1
PSR(배)	3.0	1.6	2.1	1.0	1.2
EV/EBITDA(배)	N/A	44.0	37.1	14.2	16.2
PBR(배)	5.2	3.6	2.5	1.4	1.4
ROE(%)	-50.7	3.7	-20.9	4.7	0.9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30)	1,352원
52주 최고가	2,145원
52주 최저가	1,150원
KOSDAQ (9/30)	841.99p
자본금	31억원
시가총액	416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31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1.40%
주요주주	김형철 외 4 인 29.90%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7	-14.6	-35.3
상대주가	-10.7	-29.6	-41.3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코스닥 라이징스타'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한국거래소가 선정하고 있는 기업



기업 개요

1 회사 연혁

2002년 설립된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전문기업

자비스(XAVIS)는 X-ray Automatic Vision System의 약자로, X-ray를 이용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식품 등을 검사하는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2002년에 김형철 대표이사가 삼성전자 자동화 연구소에서 14년간 자동화 검사기술 경력을 쌓으며, X-ray 검사기술을 발전시켜 사업화하고자 설립하였으며, 2003년 X-ray 검사기술을 바탕으로 식품 이물질 검사기인 Fscan-3000을 개발하였다. 2004년에는 국내 최초 산업용 단층촬영(CT) 장비를 출시하며 기술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후 제품군을 식품 분야인 Fscan 시리즈와 반도체, PCB, 다이캐스팅, 2차전지 등 Xscan 시리즈로 양분하여 사업군을 구축하였다. 2007년 국내 최초로 나노급 해상도의 X-ray 검사기(Xscan-7120 CART)와 각형 배터리 정밀 X-ray 검사기(XSCAN-7090B) 등을 개발하였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세계최초로 삼성전자에 반도체 IC 솔더링 검사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는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s Board, 연성인쇄회로기판) X-ray 검사분야에 진입하였다. 동사는 X-ray 검사장비의 수요와 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제품군을 식품, 반도체, 2차전지 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로도 넓히면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동사는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뒤, 2019년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였다. 같은 해 일본 RICOH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기술성과 산업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사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ATC 과제, 2021년 ATC+ 과제 및 국책과제에 연이어 선정되며 AI 기반 초정밀 반도체-배터리 검사장비와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대형 EV 원통형 배터리 X-ray 자동 불량 검사장비 과제를 주관하며 18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매출 성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년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에 선정되며 차세대 성장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자비스 연혁

2002.04	2004.09	2011.08	2015.11	2017.04	2019.04	2019.11	2020.12	2021.04	2021.08	2023.01	2024.12	2025.08
주식회사 자비스 설립	국내최초 산업용 단층 촬영(CT) 장비출시	삼성전자 반도체 IC 솔더링 검사 장비 납품	코넥스 시장 상장	ATC국책과제 선정	RICOH 전략적 제휴 체결	코스닥 시장 상장	철탑산업훈장 수상	ATC+ 국책과제 선정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국방과제 선정	배터리 X- ray 검사장비 S 사 (수주 180억)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년 연속 코스닥 라이징스타 선정

자료: 자비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사업부별 매출 비중(2024)은
XSCAN 2차전지 49.5%,
XSCAN-PCB 14.6%, FSCAN
23.9%, 기타 12.0%

사업부문은 제품(Xscan, Fscan 등), 기타(용역 및 임대수익, 상품)로 이루어져 있다. 2024년 매출비중은 XSCAN 2차전지 49.5%, XSCAN-PCB 14.6%, FSCAN 23.9%, 기타 12.0% 등이다. Xscan은 주로 산업용 X-ray 검사장비 부문이며, Fscan은 식품(제약) 이물 검사장비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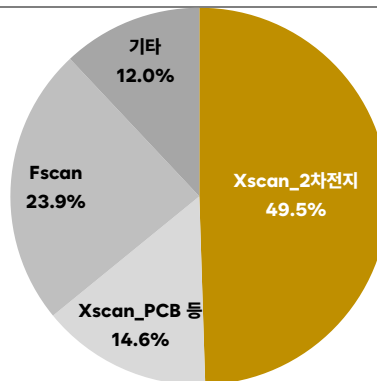
Xscan

Xscan은 X-ray를 이용하여 반도체, 2차전지(배터리), 산업용 부품 등의 외관 및 내부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장비로, 적용되는 사업으로는 이차전지, 반도체, PCB/SMT(표면실장기술) 등이 있다. 동사는 고객사 요구에 부합하는 표준형 검사장비를 라인별로 구축하고 있으며, Off-Line 2D, Tilt-View, CT&3D 성능을 보유한 Xscan-A, H, C시리즈 등 단일화를 통하여 표준검사장비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해 시리즈 검사장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자동판정검사 기능을 구축하며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Fscan

Fscan은 식품 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이물질을 검사하는 장비이며, 동사가 제조하는 Fscan의 사업영역은 식품과 제약이다. 동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식품과 제약 업체에서 이물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존 제품 내 이물검사 이외에도 내용물 누락/부족 여부, 포장상태에서의 개수(제약 등) 부족, 아이스바, 어묵바 등의 바-타입의 형상 불량 검사 등을 추가로 검사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고객사로는 CJ, 오투기, 종근당건강, 일동제약 등이 있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2024)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회사 및 주주현황

종속회사는 비상장사 4개사로,
자비스옵틱스,
연태정격검사기술유한공사,
XAVIS Tech, XAVIS USA INC

종속회사는 비상장 4개사로, 자비스옵틱스(지분율 65.0%), 연태정격검사기술유한공사(지분율 50.0%), XAVIS Tech(VIETNAM)(지분율 74.67%), XAVIS USA INC(지분율 100.0%)가 있다.

자비스옵틱스는 X-ray 장비 및 머신비전 검사장비업체로 100nm까지 구현 가능한 배터리/반도체 3D 고해상도 현미경 나노 CT장비를 개발하였다. 이 장비는 엑스선을 사용해 대상의 내부구조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장비이다. 현재는 연구소 수준 데모장비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연태정격검사기술유한공사와 XAVIS USA INC는 각각 중국, 미국 소재 종속기업으로, X-ray 장비 판매를 주 사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XAVIS Tech(VIETNAM)는 베트남 소재의 종속기업으로, 주요 영업활동은 X-ray 장비의 연구개발이다.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로,
1H25말 지분율 28.65% 보유

최대주주는 김형철 대표이사로,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 지분율 28.65%를 보유하고 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2019년 아이비케이에스제5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다. 이에 최대주주가 밸류아시아캐피탈에서 김형철 외 4인으로 변경되었다. 김형철 대표이사는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 아주대학교 정보전자 석사를 전공하여 1988년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책임연구원, 2001년 삼성전자의 LAB부서장으로 근무하였으며, 3차원 X-ray기술로 장영실상, 삼성그룹 회장상, 철탑 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X-ray 분야의 전문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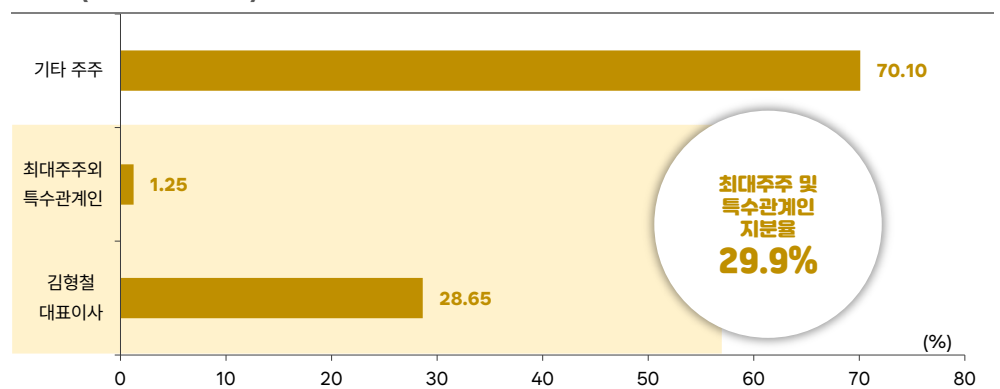
종속회사(1H25)

(단위: 백만 원)

구분	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설립일	소재지	지분율(%)	매출액	반기순이익
종속 기업	(주)자비스옵틱스	X-Ray 장비의 연구개발 머신비전 검사장비 연구개발	2018.07.17	한국	65.0	-	-92
	연태정격검사기술유한공사	X-Ray 장비 판매	2018.11.05	중국	50.0	-	0
	XAVIS Tech(VIETNAM)	X-Ray 장비의 연구개발	2020.09.10	베트남	74.7	890	-107
	XAVIS USA INC	X-Ray 장비 판매	2023.03.31	미국	100.0	-	-33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2025년 6월말 기준)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방식은
비파괴 검사로 의료 뿐만 아니라
식품, 2차전지, 반도체, 방산 등
다양한 산업으로 적용 확대**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방식은 비파괴(NDT, Non Destructive Testing) 검사방식으로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의 이물검사, 반도체, 2차전지 부품의 미세한 결함을 검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비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구조나 재질, 성능, 상태, 결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검사방식이다. 물품 내부에 결함은 파괴하여 조사하면 가장 확실하게 결함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파괴검사는 낭비와 비용적 손실이 많아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분야에서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검사 등은 비파괴 검사에 해당하지만, 통상 엑스레이를 이용한 산업용 비파괴검사는 반도체(PCB/SMT), 2차전지, 식품, 제약, 국방(폭발물 탐지) 등의 산업에 널리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장비시장은 국내에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는 머신비전(Machine Vision) 외관검사 기술이 1980년대 중반부터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에 도입되었으며, 산업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반도체 검사 관련 머신비전 기업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 휴대기기 및 노트북 산업이 성장하면서 PCB, SMT 산업에 머신비전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동사와 같이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엑스레이 검사장비 경쟁업체 중에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에 특화된 세크는 2000년 3월에 동종업체 중 가장 먼저 법인으로 설립(모태는 1991년 창업한 세크엔지니어링)하였으며, 동사는 그로부터 2년 후 2002년 4월 설립되었다. 2차전지에 특화된 엑스레이 검사장비업체인 이노메트리는 2008년 설립되었다. 엑스레이 검사장비기업들은 사업초기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주로 식품 이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했으며,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전기차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차전지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반도체 시장에서 부품의 소형화, 전자회로기판의 고집적화, 생산라인 고속화에 따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장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시장은
극간 검사에 이어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이물검사 수요
증가세**

2차전지 시장은 최근 엑스레이시장에서 가장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폭발 및 화재사고로 인해 배터리의 안정성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이나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엑스레이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가 필수적으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터리의 고성능화로 에너지 밀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2D 검사로는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3D 엑스레이 검사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으며, 과거 배터리 검사는 주로 극간 검사 수요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해 이물검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2차전지 검사장비업체들의 국내 고객사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이 있으며, 해외 고객사로는 CATL(중국), BYD(중국), EVE(중국), Enovix(미국), Morrow(노르웨이) 등 중국, 유럽, 북미로도 고객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 부문 대표적인 업체로는 (주)이노메트리, 자비스, (주)세크 등이 있다.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검사장비에 특화된 업체로 매출액은 2023년 838억 원에 달했으나, 2024년 전기차 및 2차전지 시장 캐즘 영향으로 530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비스의 2차전지 부문 검사장비 매출액은 2023년 121억 원에서 2024년 18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썬크는 설립 초기부터 반도체 검사장비에 특화된 업체로 2024년 반도체 비중은 39.2%, 2차전지 비중은 31.8%(17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LINAC(방산용 대형 구조물 검사장비), Tabletop SEM(신소재, 바이오, 나노 분야 R&D 장비)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어 있다.

① 이노메트리

이노메트리는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에 특화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사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동사에 비해 6년 늦은 시기인 2008년 설립되었으나, 코스닥 상장은 2018년으로 동사에 비해 1년여 빨랐다.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등 배터리 폼타입에 상관없이 자체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용량 이미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배터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생산라인을 잠시 멈춰 사진을 찍고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라인을 멈추지 않고(In-line)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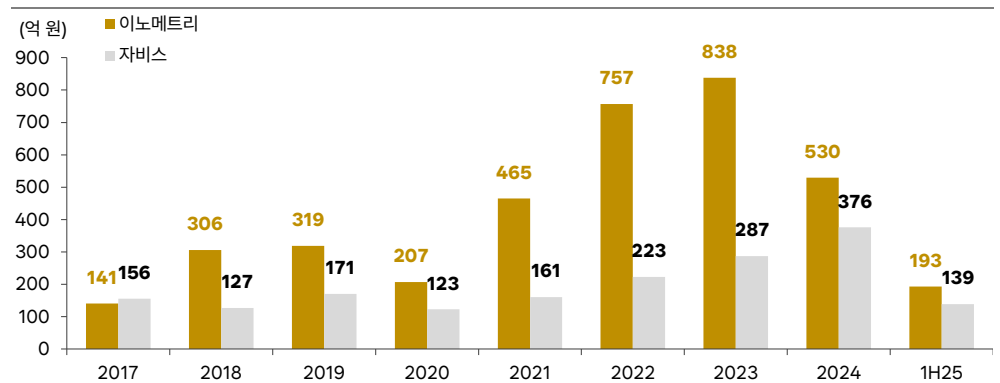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글로벌 배터리업체에 X-ray 및 CT 검사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장비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을 차례로 쌓아 올려 배터리 셀을 만드는 자동화 설비인 스택킹(Stacking) 장비 제조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2017년 무역의 날 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22년 이천만불 수출의 탑, 2023년 삼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 삼성SDI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다.

매출액은 전기차 및 2차전지시장의 고성장으로 2023년 역대 최대치인 838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2024년 매출액은 530억 원으로 36.8%나 급감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023년 82억 원(영업이익률 9.8%)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4년 -72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하였다.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93억 원으로 전년동기(306억 원)대비 36.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로 전환하였다.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장비 2사 매출액 비교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

반도체의 미세패턴화, 고단화 적층기술, TSV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 발전으로 검사장비 수요 증가

반도체 분야는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산업과 더불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진행되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시장도 동반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반도체의 미세패턴화 및 고단화 적층기술,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기존 검사방식인 프로브(Probe) 방식은 새로운 패키징 구

조에 대응하기 어려워졌으며, 이러한 미세패턴에 적용 가능한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장비 니즈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Flip Chip 외부의 결합 상태는 산업용 광학카메라를 이용한 비전(Vision) 검사장비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하지만, 패키지 내부나 Flip Chip 내부 결합인 기공(Void) 검사나 다층 스택(Stack) 구조의 HBM(High Bandwidth Memory)에 많이 사용되는 TSV(Through Silicon Via) 결합은 광학카메라 비전기술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반도체 검사장비는 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단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Flip Chip 기술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이다. Flip Chip 기술은 기존 와이어를 이용한 와이어 본딩기술에서 진보한 기술로 와이어를 이용하지 않고, Chip 아래면에 Solder Ball을 이용해 그대로 뒤집어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Flip Chip 기술을 적용하면 와이어 본딩만큼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작은 패키지로 소형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 부문 글로벌 업체로는 Nordson Dage(미국), Metrix(스위스), YXLON International(독일), Nikon Metrology(일본), Zeiss(독일), GE Measurement & Control(미국) 등이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주)쎬크, 테크밸리, 자비스 등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① 쎬크(SEC)

쎬크는 반도체 부문 엑스레이 검사장비업체 중 최대규모

엑스레이를 이용한 반도체 검사장비업체로는 국내 최대이며, 2025년 4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업체이다.

전체 매출액 중 반도체 비중이 가장 높지만, 2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2024년 매출액은 53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2억 원(영업이익률 2.3%)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20년 291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증가해 CAGR 16.6%를 기록하였다.

2024년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반도체 검사장비 39.2%, 배터리 검사장비 31.8%, LINAC(국방) 17.1%, Tabletop SEM(신소재, 화학, 나노, 바이오 분야 연구분석 검사장비) 6.3%, 기타 5.6%를 기록하여 반도체와 2차전지 부문이 합쳐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2차전지 검사장비로 In-line 2D 엑스레이 갭간격(극간) 검사기, 2D 엑스레이 이물 검사기, 고속 In-line 엑스레이 3D CT 검사기 등이 있다. 외형면에서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장비업체 중에 최대 규모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장기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시기에는 3개년 연속 영업적자가 이어졌으며,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영업흑자를 달성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23년 1.2%, 2024년 2.3%로 경쟁사대비 높지 않았다.

② 테크밸리(Techvalley)

테크밸리는 PCB 검사장비 부문 국내 선두업체로 반도체 및 2차전지 검사시장으로도 사업 확대 추진

1997년에 법인으로 설립된 비상장사로 경쟁업체 중에서는 법인 설립연도가 가장 빠르며,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분야 업력이 28년에 달한다. 2D 검사장비에서 3D CT 영상분석, 더 나아가 In-line 3D, CT 시스템 등 검사기술을 개발하였다.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엑스레이 검사기와 CT 검사기, 용역매출 및 소모품으로 구분되며, 주요업종별로는 배터리 검사분야, SMT용 PCB 검사분야, 반도체 검사분야, 자동차부품 검사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동사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산업용 엑스레이 CT를 개발하여 2006년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엑스레이 Chip Counter를 개발하였다. 엑스레이 칩 카운터는 이후 2024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동사의 칩 카운터는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In-line Chip Counter까지 개발하여 칩 카운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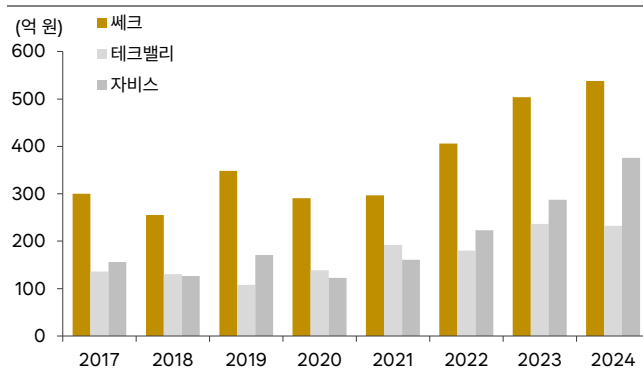
테크밸리는 PCB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S사, L사)과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PCB 검사장비시장 점유율 8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In-line 3D CT AXI 검사기술을 개발해 기존 In-line 엑스레이 검사가 불가능했던 HIP(Head-in-pillow) 불량이나, PTH(Plated through Hole)의 충진율, Via Hole 검사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시장은 그동안 독일이나 일본 검사장비업체들이 대부분 국내시장을 잠식해왔으나, 테크밸리는 기구 정밀도 개선, 검사속도 향상, 검사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2026년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차전지 검사분야에서도 국내 주요 2차전지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시장에 본격적인 시연 및 판매를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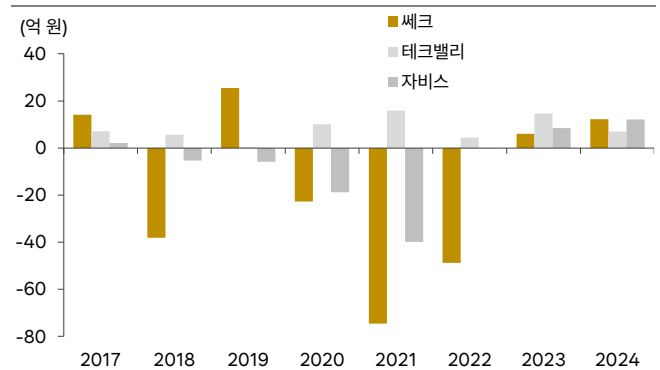
테크밸리 매출액은 2020년 139억 원에서 2024년 232억 원으로 CAGR 13.8% 성장률을 보였다. 2023년 매출액 23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24년 232억 원으로 소폭 역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테크밸리는 외형 규모는 경쟁사대비 작지만 수익성면에서는 경쟁사인 씨크나 자비스대비 높은 편이다. 2020년 이후 경쟁사들은 적자와 흑자구간을 반복하는 사이 테크밸리는 2020년 이후 5개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4%로 경쟁사대비 가장 높았다.

국내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업체 매출액 비교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업체 영업이익 비교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식품 이물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

식품 이물 검사장비는 납, 철, 합금, 돌, 유리, 뼈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품 내부의 이물질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장비이다. 식품 이물 검사장비 시장은 산업용 검사장비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수요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자비스의 경우에도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해왔다. 동사는 지난 20여년 이상 국내 및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1,500대 이상 수주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식품 검사장비 분야 선두업체이다.

최근 국내외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품 사고, 이물질 검출, 먹거리 신뢰성 문제 등 식품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식품 분야에서도 엑스레이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식품 및 제약 이물검사에서 자석검사기, 금속검출기와 같은 물리적 검사나 열 영상 카메라 등으로 영상감지 기술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금속과 더불어 비금속 물질까지 정밀검사기능이 요구되면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 검사장비시장은 엑스레이 검사장비 시장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만큼 검사장비 업체가 전세계적으로 50여개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등 제조업 기반을 가진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일본 이시다(ISHIDA), 야마토(Yamato), 메틀러 토레도(METTLER TOLEDO) 등이 있으며, 통상 유럽제품은 안전성, 일본제품은 디자인, 한국산은 실용성, 중국제품은 가성비를 확보하고 있다.



투자포인트

1 배터리 검사장비시장의 Game Changer, 초고속 3D CT 검사장비 판로 확대 기대

**2차전지 3D CT 검사장비 부문에서
SK온 레퍼런스 확보,
업계 표준으로 판로 확대 기대**

2차전지 산업은 기존 샘플링 기반의 2D 검사에서 In-line 3D CT(컴퓨터 단층촬영) 전수검사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이다. 동사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시기에 초고속, 초고해상도 3D CT 솔루션을 통해 시장을 주도할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SK온의 북미 생산라인에 자사의 3D CT 전수검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차전지 3D CT 검사장비시장에서 Game Changer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SK온으로부터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수의 국내외 배터리기업과도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으로, 2026년 본격적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2차전지는 주행거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고성능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의 미세한 내부 결함이 치명적인 배터리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커졌다.

기존의 2D 엑스레이 검사장비로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배터리 내부의 전극 정렬 불량이나 이물질 유입, 박리 현상과 같은 핵심적인 결함을 정확하게 판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3D CT 검사기술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배터리 검사장비의 고도화는 결국 화재사고로 배터리 제조사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리콜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치명적 위험 회피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3D CT 전수조사는 배터리산업의 강화된 안전 표준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산업 표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동사의 배터리 검사장비 기술 경쟁력은 크게 속도, 해상도,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검사 효율성 등 4가지 핵심요소에서 경쟁사대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동사는 원통형 배터리 기준 분당 최대 400PPM을 검사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생산라인의 병목을 유발하지 않고 In-line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두번째 기술력은 초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 동사는 광학계 설계기술과 AI 화질복원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인 30nm급 고해상도를 달성했으며, 이는 경쟁사인 독일 ZEISS의 50nm급 해상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경쟁사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결함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AI 기반의 화질복원 기술력이다. 고속검사를 위해 低선량으로 촬영된 엑스레이 영상은 필연적으로 화질 저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동사의 경우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低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실시간 복원함으로써, 속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도까지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검사의 효율성이다. 동사는 우선 빠른 2D 스캔으로 결함 의심 영역을 선별한 후 해당 부위만 정밀 3D CT 검사를 수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적용하여 전체 검사 처리량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동사의 초고속 3D CT 전수검사 기술력은 글로벌 메이저 배터리업체인 SK온 계약으로 이어지며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동사는 지난 2023년 1월 SK온으로부터 180억 원의 배터리 엑스레이 검사장비 계약을 수주하며 SK온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래, 2025년 4월에는 SK온이 배터리 품질 강화를 위해 기존 2D 샘플링 검사방식에서 생산과 검사가 동

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초고속 3D CT 전수검사체제로 라인 전환을 검토하면서 파트너사로 동사를 낙점하였다.

SK온은 미국 켄터키 1공장에 3D CT 검사장비를 적용해 배터리 생산공정에서 배터리를 회전시켜 촬영한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하는 비파괴 검사방식을 동사를 통해 도입하였다.

SK온은 기존 서산공장에는 동사의 경쟁사인 (주)이노메트리를 통해 3D CT 장비를 테스트를 위한 샘플 수준으로 공급했으나, 이번에는 양산 라인에 동사의 검사장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양산 환경에 최적화된 동사의 기술적 우위가 고객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업계 대표기업인 SK온이 3D CT 전수검사를 새로운 검사부문 표준으로 공식화하고, 그 파트너사로 동사를 선택했다는 의미이다.

동사는 2025년 3월에는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의 미국공장으로 77억 원의 2차전지용 3D CT 및 이물 엑스레이 검사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고객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닛산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는 SK온(BOSK)의 켄터키1공장 라인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의 최근 북미 배터리 공장으로서의 납품 레퍼런스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북미 배터리 생태계에서 동사가 검사장비 핵심 밸류체인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동사의 SK온 켄터키공장 수주는 북미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북미지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현대차그룹 등 다른 신규 프로젝트로부터의 향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D/3D 하이브리드 검사장비 XSCAN-9000 시리즈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도체 TGV 시장 진출

삼성전기를 고객사로 반도체 TGV 검사장비 시장 진출 기대

동사는 그동안 XSCAN 부문에서 배터리와 PCB, FSCAN 부문에서 식품 이물 검사장비 시장을 주력으로 성장해 왔으나, 향후에는 반도체 부문에서도 TSV 실리콘 소재를 대체하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로 부상중인 유리기판(TGV) 시장에서도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사는 올해초 기존 실리콘관통전극(TSV, Through Silicon Via) 공정용 장비를 유리관통전극(TGV, Through Glass Via)용 장비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글로벌 메이저 유리기판 업체인 삼성전기와 TGV용 검사장비 관련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검사장비업체로 합류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TGV(Through Glass Via)는 유리기판에 전기적 연결을 위해 수직으로 뚫는 미세한 구멍으로 이를 통해 유리기판 내

층간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TGV는 미세하고 정밀한 구조를 가져 불량률이 생기면 유리기판이나 패키지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검사장비 중요성이 매우 커진다.

동사가 개발한 TGV 검사장비는 TGV 공정 이후 구멍에 적용하는 구리 배선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동사의 장비는 TGV 기판검사에서 국내 최고의 택 타임(Tack Time, 생산 공정당 소요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검사 후 데이터 보관, 관리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동사는 잠재고객사인 삼성전기와 연초 TGV 검사장비 관련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테스트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는 세종시에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이르면 2027년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사의 TGV용 검사장비 납품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유리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우엠텍과 협력하여 유리기판(TGV)용 엑스레이 비파괴 검사장비 공동개발에 착수하였다. 개발 완료시점은 2025년말로 예상되며, 현재 검사장비의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빠르면 2026년부터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TGV 검사장비 시장에서 동사는 Void(기공) 검사 및 미세 크랙(Micro Crack) 부문에서 동사의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자비스 TGV 검사장비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M/S 1위 FSCAN 부문은 캐시카우로서 성장성까지 겸비

FSCAN 부문은 안정적 캐시카우이자 수출 증가로 성장성에도 기여

동사의 식품 이물 검사장비 부문인 FSCAN 사업은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꾸준한 매출을 창출하며 재무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안정적 캐시카우 역할에 더해 성장성에도 주목할 만하다.

FSCAN 사업부 매출액은 2018년 45억 원에서 2025년 103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억 원을 상회하며 연평균성장률(CAGR) 1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보면 동사의 FSCAN 매출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간 평균 70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4년 9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FSCAN 사업부가 그동안 내수 위주의 성장이 정체된 흐름에서 벗어나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출이 FSCAN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FSCAN 내수 매출액은 2018년 34억 원에서 2025년 53억 원으로 7개년간 연평균 6.5% 성장할 전망이다, 수출 매출액은 2018년 11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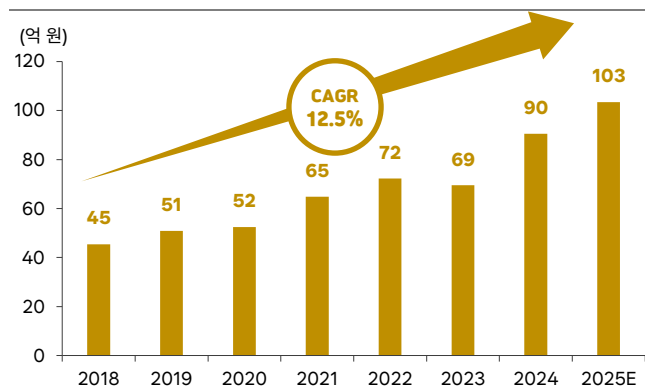
으로 연평균 23.8% 성장해 내수 매출성장률대비 4배에 가까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사의 식품 이물 검사 기술력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외 시장에서는 생선뼈, 닭뼈 등 중-저밀도 이물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 기능식품 시장 확대도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FSCAN 사업부문은 수익성면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두자리대로 추정되어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무적 안정성은 자본 집약적이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2차전지 및 반도체 검사장비 분야의 성장전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FSCAN 사업에서 창출되는 안정적 현금흐름은 외부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내부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사는 국내 식품 엑스레이 이물검사 시장에서 확고한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설립 이후 지난 20여년간 1,700대 이상의 장비를 판매한 독보적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는 3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의 식품 이물 검사 기술력은 단순히 금속 이물을 검출하는 수준을 넘어 뼈, 유리, 플라스틱 등과 같이 밀도가 낮아 검출이 어려운 비금속 이물질까지 정밀하게 식별해낼 수 있다. 최근 식품 안전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동사의 기술력 우위는 핵심적인 차별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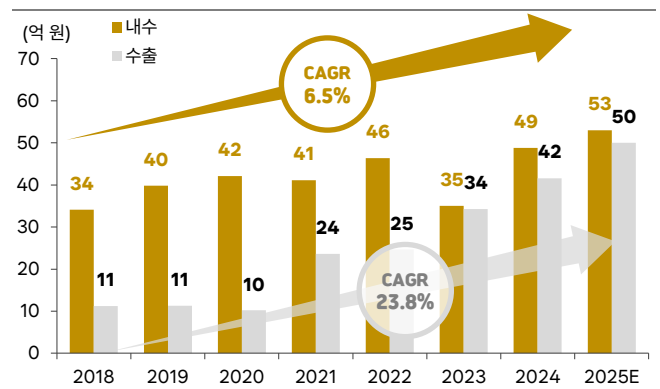
FSCAN 사업이 안정적인 Cash-cow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나 소비 심리에 따른 수요 변동성이 크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같은 법적 규제 강화와 식품 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안정적으로 견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SCAN 사업부는 경기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기방어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평균 두 자리 대 안정적인 외형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성장성으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자비스 FSCAN 매출액 추이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비스 FSCAN 매출액 구분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분석

**전 사업부문의 성장으로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 매출액 달성,
2차전지 XSCAN 부문이 성장 주도**

2024년 동사의 실적은 전 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으로 매출액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치인 376억 원으로 전년대비 31.0% 증가하였다. 연간 매출액이 처음으로 300억 원대를 상회하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실적이었다. 주목할 점은 수익성으로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3.2%로 2015년 이후 최근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13억 원으로 전년 39억 원의 대규모 적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흑자로 전환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보면 2차전지 XSCAN 부문 매출액은 186억 원으로 전년대비 53.9% 급증했으며, 매출비중은 49.4%로 전년대비 7.4%p 상승하며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도별 2차전지 XSCAN 부문 매출액을 보면 2020년에는 9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 186억 원으로 4개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12.1%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차전지 XSCAN 부문의 외형 성장은 동사가 2023년 1월 SK온의 북미 FORD 합작법인(BOSK)으로부터 183억 원의 2차전지용 엑스레이 검사장비 수주분이 매출에 반영된 결과이다. 2차전지 부문에서는 기존에는 배터리 셀 극간검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화재 안전성 이슈로 셀 극간검사뿐만 아니라 이물검사로도 검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2D에서 In-line 3D CT 검사장비로 수요가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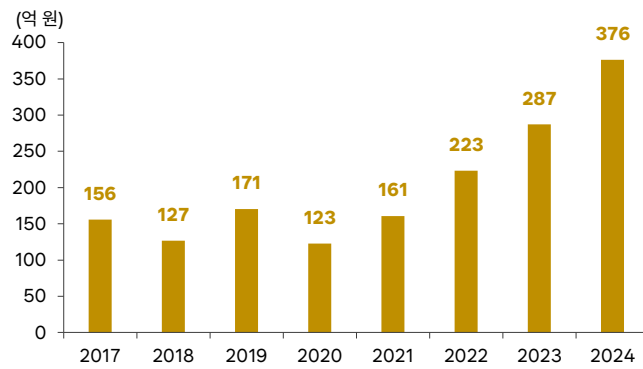
XSCAN 사업부문에서 2차전지를 제외한 SEMI(PCB/SMT) 부문 매출액은 55억 원으로 전년대비 6.8%(3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부품의 소형화, 전자회로기판의 고집적화, 생산라인의 고속화에 따라 검사장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SEMI XSCAN 부문 매출비중은 22.1%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다.

식품 이물검사 분야 FSCAN 매출액은 90억 원으로 전년대비 30.2% 급증하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FSCAN 부문 매출비중은 27.3%로 전년대비 1.1%p 하락하였다. 매출액 절대규모는 증가했으나, 2차전지 부문의 가파른 매출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FSCAN 매출비중이 하락하였다. FSCAN 부문 검사 대상은 식품 및 제약 분야의 포장 전후 금속 및 비금속 물질로, 해외시장에서 생선뼈, 닭뼈 등 중·저밀도 이물 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파른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FSCAN 부문 수출액은 42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2.1%의 고성장세를 기록하였다. FSCAN 내수 매출액은 49억 원으로 전년대비 38.8% 증가했으나 최근 5개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은 3.7%로 저성장 국면을 보이고 있다. 결국 FSCAN 부문 검사장비 수요는 내수가 정체 국면인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추세인 것이다.

2024년 동사의 수주총액은 219억 원으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해 보면 XSCAN(2차전지/PCB) 부문은 129억 원으로 전년(310억 원)대비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SK온 수주(183억 원) 증가에 따른 역기저효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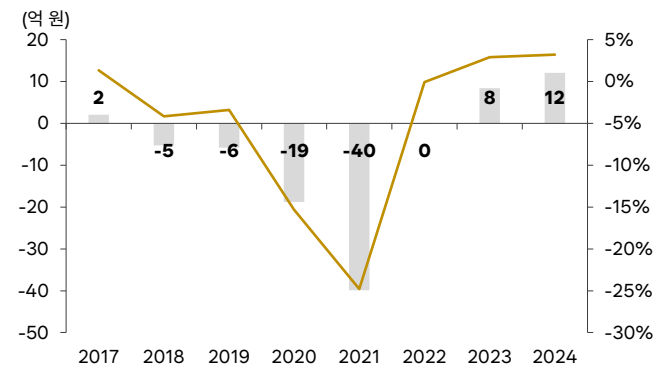
FSCAN 부문 수주총액은 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5.0% 증가하였다. 2024년 매출에 반영된 既납품액을 제외한 수주 잔고는 7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9.5% 급감하였다.

자비스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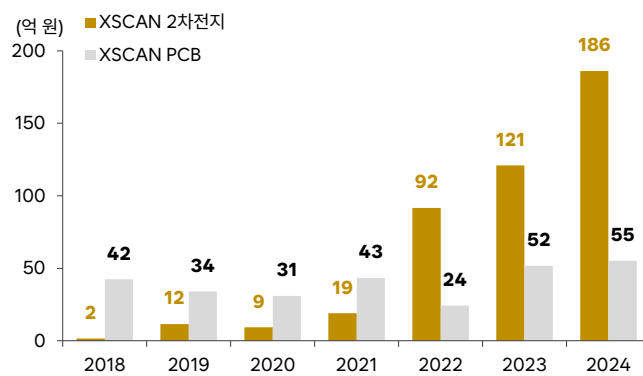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비스 영업이익 &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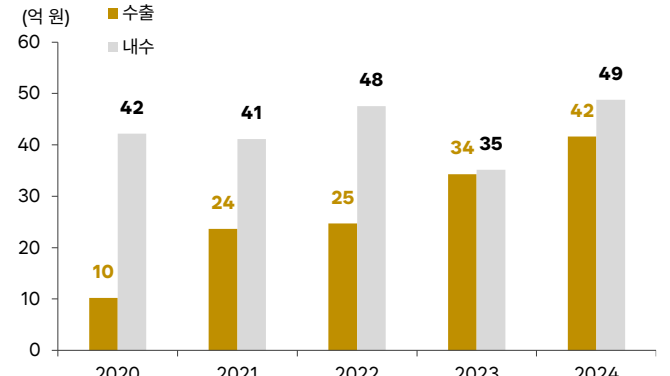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비스 XSCAN 부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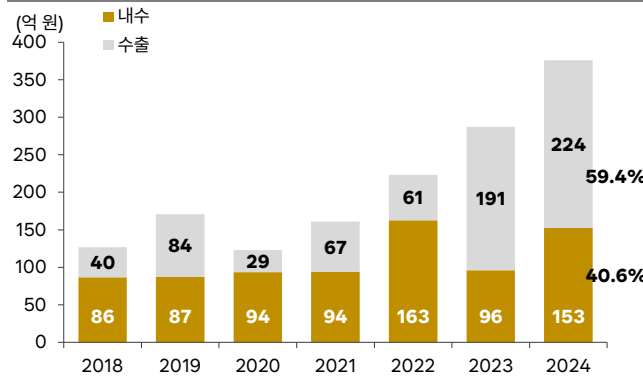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비스 FSCAN 부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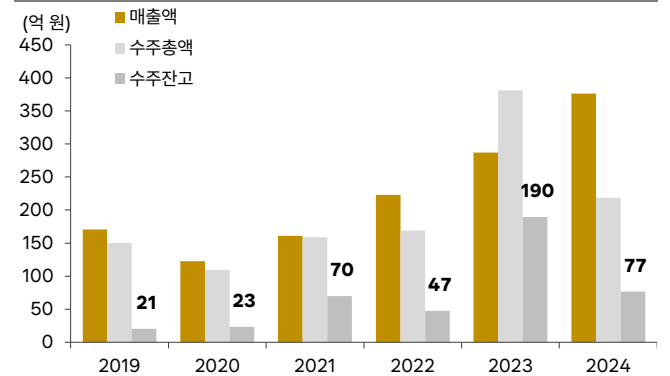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내수 & 수출 매출액 추이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비스 매출액 & 수주액 & 수주잔고 추이



자료: 자비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상반기 실적 분석 및 연간 전망

2025년은 XSCAN-PCB 및 FSCAN 부문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XSCAN 부문 매출 공백으로 단기 실적부진 전망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39억 원, 영업이익은 -3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0.7% 급감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20억 원에서 적자로 전환하였다.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은 2차전지 XSCAN 부문의 매출 공백이다. 동사의 2차전지 부문 매출액은 2023년 1월 SK온으로부터의 대규모(183억 원) 수주로 2024년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상반기에는 반대로 역기저효과로 매출 공백이 발생하며 2차 전지 부문 매출액이 16억 원에 불과하여 전년동기(151억 원)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XSCAN-PCB 매출액은 3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1% 증가했으며, 식품 이물 분야 FSCAN 매출액은 4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0% 급증하며 2차전지 부문의 매출 감소분을 일부 상쇄하였다.

상반기 내수 매출액은 71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유사했으나, 2차 전지 부문의 판매 부진으로 수출액은 6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6%나 급감하였다. 전년 SK온의 복미합작법인 매출 증가에 따른 역기저효과이다.

상반기말 수주잔고는 156억 원으로 전기 말 77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FSCAN 수주잔고는 2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2억 원 증가에 그쳤으나, XSCAN 부문 수주잔고는 130억 원으로 전년 말 54억 원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연간 매출액은 344억 원,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전망하여 매출액은 전년대비 8.7% 감소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8.0%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2.5%로 전년대비 0.7%p 하락할 전망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XSCAN 2차전지 부문 매출액은 84억 원으로 전년대비 54.8%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매출 증가와 수주잔고 소진으로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16억 원으로 급감한 영향으로 하반기 매출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감소가 불가피하다. XSCAN 부문 수주잔고가 전년 말 54억 원에서 2025년 상반기말 130억 원으로 증가하여 하반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2차전지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XSCAN-PCB 부문과 FSCAN 식품 이물 검사 부문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하며 2차전지 부문의 매출 감소를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XSCAN-PCB 검사장비 매출액은 95억 원으로 전년대비 72.1% 급증할 전망이며, 식품 이물 분야 FSCAN 부문 매출액은 1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며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억 원대를 상회할 전망이다.

2차전지 3D CT 전수검사 장비와 반도체 TGV 검사장비 양산이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 퀀텀 점프 기대

XSCAN 2차전지 검사장비 부문의 수주 공백으로 2025년 실적은 외형과 수익성 면에서 전년대비 감소가 예상되지만, 2026년 이후 동사의 매출액은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부문은 2차전지 XSCAN 부문이다. 동사는 SK온의 복미 생산라인에 자사의 3D CT 전수검사 시스템을 공급하며 2차전지 3D CT 검사장비시장에서 Game Changer로 부상했으며, 북미지역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다수의 국내외 배터리기업과도 현재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인만큼, 2026년 본격적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서도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는 유리기판(TGV) 시장에서도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사는 올해초 기존 실리콘관통전극(TSV, Through Silicon Via) 공정용 장비를 유리관통전극(TGV, Through Glass Via)용 장비로 개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를 글로벌 메이저 유리기판 업체인 삼성전기에 납품을 추진 중이다.

동사의 TGV 검사장비는 상반기 중 기술개발과 Demo 영상홍보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영업 활동과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기의 TGV 양산시점이 2027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사의 납품시기는 2026년으로 전망된다.

2차전지 초고속 3D CT 전수검사장비와 반도체 부문 TGV 신규 검사장비의 본격적인 판매시기가 맞물리면서 2026~2027년경 동사의 매출액은 500~700억 원 수준으로 단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퀀텀(Quantum) 점프가 예상된다.

실적 추정

(단위: 억 원, %)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61	223	287	376	344
XSCAN 2 차전지	19	92	121	186	84
XSCAN PCB	62	27	54	55	95
FSCAN	65	72	69	90	103
영업이익	-40	-0	8	12	9
영업이익률	-24.8	-0.1	2.9	3.2	2.5
순이익	-50	4	-39	13	3
매출증가율	30.9	38.9	28.6	31.0	-8.7
영업이익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43.4	-29.2
순이익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80.8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BR 1.4배로 코스닥평균 및 검사장비업종 평균대비 저평가 국면

現주가는 2025년 추정BPS대비 PBR 1.4배로 코스닥평균(PBR 2.8배) 및 동종업종 평균(3.9배)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5개년간 동사의 평균 PBR은 3.8배로 現주가는 동사 과거 평균 주가 밸류에이션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 할 수 있다. 동사의 ROE는 2024년 4.7%에서 2025년 0.9%로 낮아질 전망이다.

주가는 연초대비 6.9% 상승하여 동기간 24.2% 상승한 코스닥지수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동사는 2023년 1월 SK온의 북미 합작법인(BOSK)으로부터 2차전지 극간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로 2024년 2차전지 XSCAN 부문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최대 매출원으로 부상했으나, 전기차 캐즘에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개정 발표한 OBBBA 법안에 따라 신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는 등 북미시장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으며, NCM 계열 삼원계 배터리 대신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외 배터리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사장비 시장에서도 신규 수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엑스레이를 활용한 검사장비업체로서 2차전지(극간&이물검사), PCB/SMT/반도체, 식품(이물검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업종내 Peer로는 2차전지 및 반도체 시장 검사장비업체인 이노메트리, 세크, 파크시스템스, 고영, 인텍플러스, 펄트론 등이 있다. 동종업체 중에서는 2차전지에 특화된 이노메트리가 동사와 가장 유사한 사업영역을 영위하고 있다.

이노메트리는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방식으로 전기차용 2차전지 및 모바일기기의 내부결함을 검사한다.

이노메트리의 상반기말 기준 PBR은 1.2배로 동사(1.5배)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이노메트리가 2차전지에만 편중된 사업구조를 영위하여 2차전지 캐즘 국면에서 2024년부터 매출 급감과 영업적자 전환 등 실적 악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노메트리에 비해 동사는 PCB/SMT/반도체/식품/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해 일부 주요산업의 불황에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이용한 반도체 검사장비 부문에서 동사와 사업구조가 가장 유사한 경쟁업체는 2025년 4월에 상장한 (주) 세크이다. 세크는 주력으로 반도체 엑스레이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LINAC(방산), 연구분석용 Tabletop SEM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말 기준 세크의 PBR은 2.3배로 동사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엑스레이 검사장비업체는 아니지만, 첨단 나노 계측장비인 원자현미경(AFM) 분야 국내 1위업체인 파크시스템스는 현재 상반기 자본총계 기준 PBR 8.6배로 업종내 프리미엄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1.8조 원에 달한다.

고영은 3D 검사장비 제조업체로 주로 전자제품 및 반도체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반기말 기준 PBR은 3.2배로 동사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인텍플러스는 카메라를 이용한 머신비전 기술로 표면 형상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2D/3D 자동 외관검사장비, 반도체 패키지, 반도체 기판, 디스플레이 및 EV용 배터리에 대한 외관 검사장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인텍플러스는 상반기말 기준 PBR 5.1배로 역시 동사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검사장비 업종에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업체는 2022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펄트론이다. 펄트론은 머신비전 및 영상처리 SW기술에 기반하여, SMT, 반도체, 2차전지 시장에서 3D 정밀공정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반기말 기준 PBR은 무려 21.4배에 달한다. 펄트론의 시가총액은 4,481억 원에 달하는데, 반기 말 자본총계는 202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보면 동사와 같이 엑스레이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는 이노메트리, 씨크의 평균 PBR은 1~2배 수준에 불과한데 비해 파크시스템스, 인텍플러스, 고영, 팜트론 등 반도체산업에 주로 특화된 업체들일수록 평균 PBR 5배 이상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차전지 부문의 캐즘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와 그에 따른 북미 투자 불확실성, 중국업체들의 시장 잠식 등이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검사장비 업체들은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Peer업체들의 연초대비 주가수익률을 보면 2차전지 검사장비 비중이 높은 동사와 이노메트리의 경우 연초대비 주가 수익률이 각각 7%와 4% 상승에 그친 반면, 인텍플러스(+87% YTD), 고영(+78% YTD), 파크시스템스(+22% YTD) 등 반도체 산업에 비중이 높은 검사장비 업체들은 주가수익률이 동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엑스레이 검사장비시장 All-round Player로서 식품, 2차전지, 반도체 등 전 사업부문에서 고성장 기대, 향후 주가는 2026~2027년 신성장동력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리레이팅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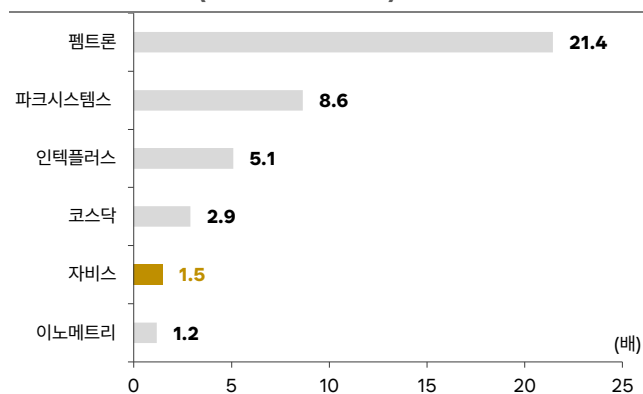
동사는 사업 초기 식품사업 위주의 검사장비사업에서 현재는 2차전지, 반도체(PCB, SMT) 등 산업용 검사장비로 사업을 확대해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검사장비시장에서는 All-round Player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캐시카우로 인식되는 식품 이물 분야 FSCAN 사업부문이 해외 수출 증가로 매년 연평균 두자리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부문에서는 동사가 SK온의 초고속 3D CT 전수검사 장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업종내 최대 경쟁사인 이노메트리를 기술적으로도 넘어서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국내외 글로벌 배터리업체 도로 납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울러 반도체 부문에서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패키징인 TGV 검사장비도 개발에 성공해 2026년부터 글로벌 유리기판 기업인 삼성전기에도 핵심 파트너사로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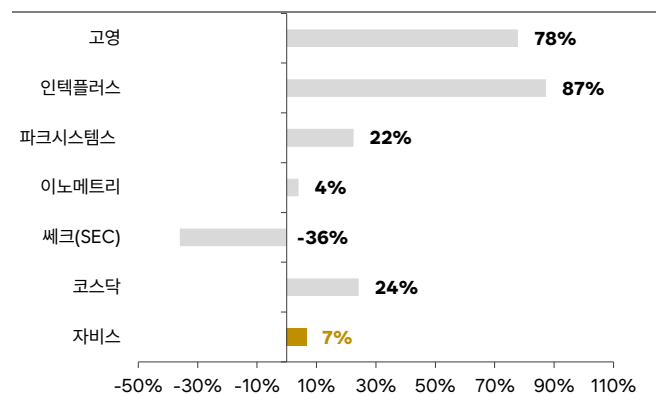
현주가는 2차전지 및 반도체 분야 동사의 신성장동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수주와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도래할 경우 주가는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장비업종 PBR 비교(1H25말 자본총계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검사장비업종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단위: 억 원, 배, %)

		자비스	파크시스템스	인텍플러스	팜트론	이노메트리	고영	세크
시가총액		416	18,118	2,416	4,481	733	9,921	782
자산총계	2022	283	1,670	1,162	728	800	3,917	679
	2023	460	2,017	1,319	747	865	3,672	739
	2024	393	2,743	1,241	717	776	3,779	781
	2025E	374	3,300	1,290	750	N/A	4,532	N/A
자본총계(지배)	2022	99	1,195	672	261	558	3,052	158
	2023	274	1,435	559	324	641	3,053	-132
	2024	288	1,879	455	280	638	3,232	206
	2025E	290	2,339	450	296	N/A	3,210	N/A
매출액	2022	223	1,245	1,188	612	757	2,754	420
	2023	287	1,448	748	737	838	2,256	504
	2024	376	1,751	839	570	530	2,025	539
	2025E	344	2,156	973	702	N/A	2,281	N/A
영업이익	2022	0	326	194	64	38	443	-36
	2023	8	276	-111	81	82	204	2
	2024	12	385	-156	-36	-72	33	13
	2025E	9	528	23	28	N/A	181	N/A
영업이익률	2022	-0.1	26.2	16.3	10.4	5.0	16.1	-8.7
	2023	2.9	19.0	-14.8	10.9	9.8	9.0	0.5
	2024	3.2	22.0	-18.6	-6.4	-13.6	1.6	2.5
	2025E	2.5	24.5	2	4.0	N/A	8.0	N/A
당기순이익(지배)	2022	4	280	163	53	27	393	-44
	2023	-39	246	-108	71	78	219	-69
	2024	13	428	-119	-19	-15	210	21
	2025E	3	469	N/A	-570	N/A	176	N/A
PER	2022	98.4	28.2	10.7	10.2	47.1	22.3	N/A
	2023	-15.9	49.2	-35.8	26.8	14.2	51.8	N/A
	2024	29.5	34.5	-10.9	-58.4	-48.1	26.5	N/A
	2025E	164.1	36.4	-24.2	213.4	N/A	56.3	N/A
PBR	2022	3.6	6.6	2.5	2.3	2.3	2.8	0.0
	2023	2.5	8.4	6.7	5.9	1.7	3.6	0.0
	2024	1.4	7.8	2.7	3.9	1.1	1.7	0.0
	2025E	1.4	7.7	5	15.0	N/A	3.0	N/A
ROE(지배)	2022	3.7	26.7	27.7	28.0	4.9	13.4	-36.2
	2023	-20.9	18.7	-17.5	24.3	13.0	7.2	N/A
	2024	4.7	25.8	-23.4	-6.3	-2.3	6.7	56.0
	2025E	0.9	23.6	-2	7.3	N/A	5.5	N/A
현금배당수익률	2022	0.0	0.4	1.5	0.0	0.0	1.1	N/A
	2023	0.0	0.2	0.0	0.0	0.0	0.9	N/A
	2024	0.0	0.2	0.0	0.0	0.0	1.7	N/A
	2025E	0.0	0.2	N/A	0	N/A	1.0	N/A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9월 30일 종가 기준. 동양파일 실적 추정치는 당리서치 추정, Peer 실적 추정치는 Fnguided 컨센서스 기준



리스크 요인

1 전기차 시장의 캐즘과 트럼프 정부의 세제혜택 축소

국내 배터리3사의 글로벌 M/S 하락 및 미국의 전기차산업에 대한 비우호적 정책기조는 리스크 요인

현재 엑스레이 검사장비사업을 영위하는 동사의 최대 수요산업은 2차전지업종으로 주요 고객사는 국내 배터리 3사이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가 향후 신규 수주와 매출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선행지표이다.

SNE리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7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590.7GWh로 전년동기대비 35.3% 성장했으나, 동기간 국내 3사 합산 배터리 사용량은 98.4GWh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 3사 합산 시장점유율은 2024년 7월 누계 기준 21.1%였으나, 2025년 7월 누계 기준으로는 16.7%로 전년동기대비 4.4%p 점유율이 하락하였다.

북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에는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시장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트럼프 2기정부는 지난 7월 대규모 감세법안인 OBBBA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기차 신차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을 9월말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미국 현지의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은 2032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나, 신차 구매에 대당 7,500달러에 달하는 세제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이는 신차구매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61	223	287	376	344
증가율(%)	30.9	38.9	28.6	31.0	-8.7
매출원가	125	157	203	273	230
매출원가율(%)	77.6	70.4	70.7	72.6	66.9
매출총이익	36	67	84	104	113
매출이익률(%)	22.3	29.9	29.4	27.5	32.9
판매관리비	76	67	76	91	105
판매비율(%)	47.2	30.0	26.5	24.2	30.5
EBITDA	-24	10	19	23	23
EBITDA 이익률(%)	-15.0	4.7	6.7	6.1	6.7
증가율(%)	적지	흑전	84.5	19.1	0.7
영업이익	-40	-0	8	12	9
영업이익률(%)	-24.8	-0.1	2.9	3.2	2.5
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43.4	-29.2
영업외손익	-11	3	-48	-0	-6
금융수익	17	16	6	10	5
금융비용	8	14	54	10	8
기타영업외손익	-20	0	0	0	-3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2	3	-40	12	2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80.9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52	3	-40	12	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52	3	-40	12	2
당기순이익률(%)	-32.1	1.2	-13.8	3.2	0.7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흑전	-80.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50	4	-39	13	3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4	-16	-89	108	-8
당기순이익	-52	3	-40	12	2
유형자산 상각비	9	8	9	9	11
무형자산 상각비	6	2	2	2	4
외환손익	0	2	2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4	-34	-110	86	-25
기타	17	3	48	-1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2	15	-7	-13	-1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6	-6	-6	-6	-12
기타	-16	21	-1	-7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0	-1	106	-41	-30
차입금의 증가(감소)	-24	0	0	-40	-30
사채의증가(감소)	60	0	-18	0	0
자본의 증가	0	0	128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6	-1	-4	-1	0
기타현금흐름	0	-1	-0	2	0
현금의증가(감소)	-26	-3	9	56	-49
기초현금	61	35	32	40	96
기말현금	35	32	40	96	47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159	157	326	259	242
현금성자산	35	32	40	96	47
단기투자자산	25	3	3	1	1
매출채권	23	40	86	67	83
재고자산	70	75	176	87	104
기타유동자산	6	8	20	8	7
비유동자산	132	126	134	134	132
유형자산	90	97	91	91	93
무형자산	7	5	4	7	3
투자자산	4	2	3	4	3
기타비유동자산	31	22	36	32	33
자산총계	291	283	460	393	374
유동부채	121	180	110	97	77
단기차입금	1	0	0	0	0
매입채무	13	18	33	9	8
기타유동부채	107	162	77	88	69
비유동부채	72	2	75	8	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70	0	70	0	0
기타비유동부채	2	2	5	8	8
부채총계	193	182	185	105	84
지배주주지분	96	99	274	288	290
자본금	22	22	31	31	31
자본잉여금	264	264	468	468	468
자본조정 등	-0	1	2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91	-188	-227	-213	-211
자본총계	98	101	275	288	290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98.5	N/A	29.5	164.1
P/B(배)	5.2	3.6	2.5	1.4	1.4
P/S(배)	3.0	1.6	2.1	1.0	1.2
EV/EBITDA(배)	N/A	44.0	37.1	14.2	16.2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216	15	-140	43	8
BPS(원)	399	415	891	936	944
SPS(원)	690	931	1,030	1,223	1,117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50.7	3.7	-20.9	4.7	0.9
ROA	-17.1	0.9	-10.6	2.8	0.6
ROIC	-32.7	-0.1	3.8	5.2	4.2
안정성(%)					
유동비율	131.2	87.1	295.5	265.8	316.7
부채비율	198.0	180.6	67.3	36.6	29.0
순차입금비율	79.7	95.9	10.6	-22.2	-14.5
이자보상배율	-8.7	-0.0	1.5	5.1	10.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8	0.8	0.9	0.9
매출채권회전율	9.5	7.1	4.6	4.9	4.6
재고자산회전율	2.3	3.1	2.3	2.9	3.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자비스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0.02	자비스-FSCAN은 캐시카우, 배터리/반도체는 성장동력
2024.12.09	자비스-2차전지, 반도체, 식품에 특화된 X-ray 검사장비업체
2023.02.22	자비스-엑스레이로 이차전지와 반도체까지 검사한다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항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항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